



‘아트토이’ 컬렉터 3인 광주 전시회

“그냥 예뻐서 수집한다면 이해가 안될까요”

작품 구입 위해 일본까지... 아트토이로 프로포즈 받아
수집 넘어 헤어·메이크업·패션 바꿔 새작품 만들기도



왼쪽부터 아트토이 컬렉터 오지원·배아람·노효진씨.

좋아하는 물건에 빠져 정열을 쏟아 본 적이 있나요?
작고 귀여운 ‘아트토이’(Art-Toy)를 수집하는 사람들도 있다. 이들은 누구나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가지는 매력과 작고 귀여운 아트토이가 주는 즐거움을 위해 기꺼이 많은 시간과 돈을 들인다.
5일 오전 광주 롯데갤러리에서 ‘나의 친구, 나의 영웅-아트토이 컬렉션’ 전시를 준비중인 컬렉터 배아람(여·35)·오지원(여·31)·노효진(여·24)씨를 만났다.
왜 하필 아트토이를 수집하는지 궁금했다. 답은 간단했다. 좋아서다.
“질문이 어렵네요. 단순히 예쁘고 귀여워서 모으는 거죠. 이해하기 힘

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다들 이 매력 때문에 수집해요. 아직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최근에는 컬렉터들이 많이 늘고 있어요.”
웨딩플래너로 일하고 있는 배씨는 대학시절 독일에 본 바비 컬렉팅이 계기가 됐다. 이후 바비인형과 킬리를 수집하다 지난 2007년부터 ‘베어브리크’와 ‘더니’를 본격적으로 수집하기 시작했다. 수집한 작품들은 회사와 집에 장식장을 따로 설치해 진열해왔다. 블로그를 통해 이름이 알려지면서 방송에 출연하기도 했다.
자신 때문에 토이 관련 사업을 하자는 남편에게 아만다 비셀의 한정판 ‘지브라콘 더니’를 프로포즈 선물로



‘브라이어스’ 받기도 했다. 이 제품은 200점 한정판으로 국내에는 3점밖에 없다.
배씨는 “정확한 숫자를 세어보진 않아서 모르겠지만 대략 1000여점은 되고, 5000여만원 정도 투자한 것 같

다”며 “꼭 사고 싶은 시리즈나 한정판이 출시되면 일본으로 날아가거나 월급통장을 털어서 산적도 있다”고 말했다.
오씨는 특정 제품에 한정하지 않고 작품들을 수집한다. 친구가 보여준 ‘브라이어스’ 사진 한 장이 그를 수집광으로 만들었다. 그는 단순한 수집에 그치지 않고 일러스트레이터로 활동하고 있는 특기를 살려 토이를 재창조한다. 작품의 눈썹, 머리색, 메이크업을 바꾸고 입술 등의 세세한 부분을 변형해 자신만의 ‘아트토이’를 만든다. 최근에는 다른 컬렉터들의 컬렉션을 꾸며주고, 수리해주기도 한다.
그는 “아트토이 컬렉터 중 상당수는 수집하는데 그치지 않고, 작품 사진을 예쁘게 찍어 블로그 등에 올려 정보를 공유한다”며 “아트토이를 새롭게 꾸미는 것은 나만의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동화를 만드는 작업”이라고 밝혔다.
중앙대에서 작품을 배우고 있는 노

씨는 머리와 눈이 큰 인형 ‘브라이어스’에 빠져있다. 대학생이 1점당 100만원 호가하기도 하는 브라이어스를 수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로 학생들을 레슨하고 얻은 수입으로 아트토이를 하나씩 수집하기 시작했다.
노씨는 “브라이어스를 위해 직접 옷을 만들고 입히는 것이 제 삶에는 큰 엔돌핀”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다른 사람들에게는 단순한 ‘장난감’으로 비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아트토이가 훌륭한 ‘작품’이자 소중한 ‘컬렉션’이다”며 “관객들은 이번 전시를 그냥 보고 지나칠 줄 모르지만 한 작품을 수집하기 위해 컬렉터들이 들인 공은 그 이상이라는 것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5명의 컬렉터가 모은 아트토이 중 1000여점이 전시되는 이번 전시는 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롯데갤러리에서 열린다. 문의 062-221-1807.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광주시립민속박물관 유물 구입 3월22일까지

광주시립민속박물관이 광주역사 관련 자료와 남도민속문화 자료 등 소장 가치가 높고 희소성 있는 유물을 구입한다.
대상은 전시 가능할 정도로 보존상태가 양호하고 질이 우수한 유물들로 ▲광주·전남 지리·여행·문화 관련 자료 ▲광주역사자료 ▲남도민속자료 ▲희귀자료(회부·표해록, 황현 ‘매천야록’, 정약용 ‘여유당전서’ 등) 등이다.
/김경민기자 kki@kwangju.co.kr



재즈·발레·비보이 어우러진 ‘로미오와 줄리엣’

시즌 2 제작 발표회- 10년전 무용수들 의기투합 3월29일~31일 공연

10여년 전, 발레리노 공병태씨와 댄스 스포츠를 가르치는 문현화씨, 가수 보아의 백댄서 등이 의기투합해 댄스컬(댄스+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을 제작했다.
캐릭터와 문체규가의 싸움 장면은 합점으로 표현하는 등 발레와 댄스 스포츠가 어우러진 작품은 다양한 연령대의 관객층에게 사랑을 받았다.
10년만에 ‘로미오와 줄리엣’ 시즌 2가 제작된다. 원년 멤버였던 공병태(gk발레)·문현화(문현화M댄스 아카데미)씨 외에 발레 댄서 김경미씨가 이끄는 KM댄스 컴퍼니 단원, 문대근씨가 대표로 있는 비보

이 그룹 ‘비제 크루’가 합류했다. 또 뮤지컬 배우들과 연극인들이 힘을 보태고 여기에 당시 제작에 참여한 문철 나라 미디어 대표가 가세하면서 프로젝트가 완성됐다.
문씨 등은 4일 MBC아카데미 광주 연극원에서 ‘로미오와 줄리엣 시즌 2’ 제작 발표회를 가졌다.
오는 3월29일~31일 빛고을 시민문화관에 공연되는 시즌 2는 두 사람의 죽음으로 끝나는 원작의 비극적 요소 대신 해피엔딩인 ‘결혼식’으로 작품을 구성했다. 또 시공을 넘나들며 작품을 진행, 2013년 결혼 3일전부터 흥미로운 이야기가 펼쳐진다.

댄스 스포츠, 발레, 비보이, 발레 댄스 등 다양한 춤과 함께 뮤지컬 요소를 강화해 스토리 라인을 보강한 게 시즌 2의 특징이다.
‘로미오와 줄리엣’은 지원금 없이 작품을 제작하고 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지역 공연팀들이 대부분 지원금이 없으면 작품 제작에 임무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을 감안하면 이들의 행보는 의미있다.
또 타 지역 예술인들이 참여했던 예전과 달리 출연진과 제작진 전체가 광주 예술인들로 구성돼 있는 점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제작진은 참가자들의 교류를 통



4일 열린 ‘댄스컬-로미오와 줄리엣’ 제작발표회 모습.

해 단발성 작품 제작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버전업, 자체 브랜드로 만들어보려는 꿈도 갖고 있다.
로미오 역의 송관석·박가람, 줄리엣 역의 정정은·김해리씨를 비롯해 양선영·윤희철·박규상·노윤화·이두환씨 등 40여명이 출연한다.
총연출과 안무를 맡은 공병태씨는 “10년전 작품보다 내용을 보강하고 무대 구성도 퀄리티를 높이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며 “알차게 내용을 꾸며 순화공연 등도 추진하고 싶다”고 말했다.
프로듀서로 참여한 문철씨는 “광주에서 활동하는 다섯개 단체가 모여 만들어내는 작품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며 “20대 30대 초반의 예술인들이 꾸준히 교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대학생 기자단’ 모집 19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제6기 대학생기자단’을 모집한다.
취재팀은 현장 취재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블로그’ 운영을 맡게 되고, SNS팀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SNS 콘텐츠를 제작하게 된다. 또한 영상팀은 광주의 문화 소식을 전하며 해외팀은 조성사업을 세계에 알리는 동시에 세계 문화 소식을 국내에 전달한다.
선발된 기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의 위촉장, 기자증, 명함을 비롯해 매월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되며 최우수 활동 기자에게는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과 상금이 지급된다. 모집 마감은 오는 19일까지다.
지원서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홈페이지(http://www.asiaculturecity.com)의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내려받아 작성한 후 이메일(j0101@korea.kr)로 각 부문별 지정 과제물과 함께 제출하면 된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창업 30주년 국제보청기

국제 보청기의 정성은 고객 만족입니다

☞ 디지털 보청기(미국·독일·덴마크)를 정기적으로 서비스를 받으세요.

謹賀新年 www.kjhr.com

국제보청기 독일 한사톤(HANSATON) 정품만 취급합니다.

본점 062)227-9940	총장점 062)227-9970
목포점 061)262-9200	장흥점 062)222-9975
서울점 02)765-9940	순천점 061)752-9940

“경축” 무등산 국립공원 승격

2013년 새로운 시작!

금수장 호텔 · 아리랑 하우스에서 함께 하십시오

금수장관광호텔 아리랑하우스
예약문의. (062) 525-2111 (계림동 흥플러스 건너편)

건강한 우리음식 한정식으로 만남의 기쁨을 더 하십시오

평일 주중 점심 특선 오찬정식 16,000원

30년 전통의 한정식 **A코스 42,000원 / B코스 35,000원 / C코스 27,000원**

고객님의 여행과 휴식을 한 차원 높은 수준으로 업그레이드하여 드릴 것입니다

부담없는 가격의 내 집 처럼 편안한 객실 / 30년 전통 광주음식명가 한정식 아리랑하우스 / 각종 모임 위한 대소연회장 / 세미나를 위한 영상, 음향시설 / 광주 외인 문화 1번지 모리나리 / 맞춤형 출장도시락

since 1981 **1등 맛집 연속 선정** 31년을 고객과 함께 지켜온 광주의 대표 맛집